

로버트 바노이, 대선지자, 강의 21

다니엘, 1강, 서문

다니엘

A. 서문

1. 낱자와 저자의 문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라는 새로운 부분을 시작합니다. A. 개요에는 “Introductory Remarks”가 있고, 첫 번째 부분은 “낱자와 저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션의 첫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니엘서는 신뢰성에 관해 가장 자주 도전을 받는 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서는 허구이며 기원전 165년 직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비평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시리아, 즉 당시 아람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다 마카베우스와 그의 형제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탄압에 맞서 반란을 선동했던 때인 마카비 시대로 흔히 알려져 있으며, 비판적인 학자들이 이 책의 배경을 제공한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맥락입니다 .

물론 책 자체에는 다니엘이 썼다고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 읽습니다. 바벨론은 BC 539년에 페르시아인들, 즉

고레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 사이의 전환기인 539년의 날짜 이후가 아니라 조금 전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판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약 400년 앞선 것이다.

1. 날짜가 늦어지는 이유

날짜가 늦어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것이 정말로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측 예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선험적 가정입니다. 둘째, 다니엘 자료에 역사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작가가 기원전 165년에 이곳에 살았고 400년 전의 것에 대해 쓰고 있다면, 이론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주장은 후기 언어적 특징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것이 늦은 날짜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주장입니다.

1) 예측예언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측적 예언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나는 그것이 역사, 계시, 행동에 대한 신의 개입에 열려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세계관의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측 예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주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원인과 결과 관계 의 닫힌 연속체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그들은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작업하므로 계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이 자신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미래 과정에 대해 그토록 많이 아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인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서에 있는 자료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너무도 놀라운 세부 사항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것으로 결론짓는다.

그러나 그 결론 자체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다니엘서의 여러 곳에 묘사된 제국의 계승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책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에 꾸는 형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와 발은 철이더라. 거기에는 4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4개의 서로 다른 재질이 있습니다. 각 부분은 제국을 상징합니다 . 2장 문맥을 보면 해석이 나와 있는데, “느부갓네살아 너는 금 머리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그 계승을 이어가면 바빌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멸망했고, 그리스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연속을 거치면 로마는 기원전 165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65년에는 여전히 그리스 시대에 있으므로 바빌론, 페르시아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는 데이트라는 중요한 계획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보고 그들이 하는 일은 그것이 바빌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니엘이 기록된 날짜 이전에 네 개의 연속된 왕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순서의 문제는 메디아 왕국이 역사적으로 바빌로니아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 사이에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바빌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직접 이동합니다. 메디아인들은 기원전 539년에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패배시키기 전에 이미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에 통합되었습니다. 메디아에서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계승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페르시아인들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바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바벨론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장되는 역사적

오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하며 역사가들 사이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메디아 왕국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예언을 고려할 때 왕국의 계승에 메디아가 포함된다면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에게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들의 계획에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카베아 시대 에 살았던 작가 다니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과정에 대해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후대에 살았던 이 작가는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 사이에 메디아 왕국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잘 압니다. 따라서 이것은 필자 다니엘이 저지른 역사적 오류의 또 다른 예입니다.

내 생각에 그들은 우리가 페르시아 역사와 바빌로니아 역사에 대한 출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접근할 수 없었거나 작가는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표현하는 익명의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있지만 다니엘 시대로부터 400년 후인 기원전 165년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살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좋아요, 비판적인 관점이 다음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측적 예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많은 부분은

분명히 신성한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자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낱자와 시간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낱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여전히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2) 역사적 오류 주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역사적 오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장되는 주요 역사적 오류 중 하나는 우리가 방금 논의한 것입니다. 즉,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사이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메디아 왕국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적 오류라고 주장되는 주요 요인이다 .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국이 페르시아 에게 멸망했을 때 나보니다 대신 벨사살을 왕으로 언급한 것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오류가 있다고 주장됩니다 . 우리가 방금 본 다니엘서 5장의 끝 부분이 바로 그 구절들입니다.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바빌로니아인들이 페르시아인들에게 함락되었을 당시 벨사살은 왕이 아니었지만 나보니 다스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 이제 잠시 후에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주장되는 역사적 오류는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아버지로 언급한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절을 보면 “벨사살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탈취한 금, 은 기명을 가져오라 명하였더라” 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됩니다. 벨사살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습니다.

셋째, 메대 사람 다리오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니엘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 때는 바벨론에 대한 페르시아의 승리의 때입니다. 메디아 사람 다리오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는 바벨론 사람들을 패배시킨 것이 아니라 키루스가 패배시켰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 묵시적인 메디아 왕국 외에 세 가지 역사적 오류라고 주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나보니다스 와 벨사살 에 관한 첫 번째 기록 : 바빌로니아 역사 자료에 따르면 나보니다스는 자신의 아들 벨사살을 자신과 함께 공동 섭정으로 삼았습니다. 나 보니다스는 바빌론을 떠나 북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다니엘 5장 29절은 “이에 벨사살의 명대로 무리가 다니엘에게 다홍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드리우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국의 세 번째 통치자라는 언급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 그는 왕국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나보니 다스가 벨사살을 공동 섭정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니엘 5:29 입니다 . 따라서 벨사살이 공동 섭정으로 있는 나보니 다스는 수도가 페르시아에게 함락되었을 때 수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 날 밤에 바사가 그 성을 점령할 때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으니.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아버지로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셈족의 용법이다. “아버지” 라는 용어는 종종 조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치 “아들” 이라는 용어가 셈족 어법에서 후손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들” 은 “자손” 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서 다니엘 5장 2 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였다고 말하고 5장 22절에서는 “ 벨사살아 그의 아들 너도 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곳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가 조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니면 후손. JSOT 출판사인 구약 연구 저널(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에서 출판하고 있는 다니엘서에 대한 이 작은 학습 안내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책에 대한 학습 안내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5년에 나왔고 1988년에 재인쇄되었습니다. 그 책의 31 페이지에 - 나는 당신의 인용문에 진술을 넣었습니다. 당신의 인용문의 36 페이지를 보십시오 - 이 책의 저자는 다니엘. 그러나 그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특히 세기 전환기 무렵의 비판적 주석들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도 아니고 바벨론의 왕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역사성에 대한 비난으로 아직도 때때로 반복되며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해 저항됩니다. 그러나 1924년 이래로 나보니 다스가 신바빌로니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사실상 바빌론을 통치하고 있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 그렇다면 이 점에서는 다니엘의 말이 옳습니다. 다니엘의 오해가 드러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들'의 문자적 의미를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의 역사적 신뢰성 에 대한 강력한 주장은 이와 같은 약한 주장을 포함한다고 해서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 ”

여전히 후기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이 한 말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계시와 예측의 가능성에 관한 이 모든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다니엘서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계시의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글을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나보니 다스 와 벨사살 에 관해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바빌로니아 문서가 있습니다 . New ISBE Encyclopedia에 "Belshazzar"를 검색해 보면 이에 대한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바빌로니아 소스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한 Edwin Yamauchi가 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메대 사람 다리오의 문제입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결코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외에는 메디아 사람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벨사살-나 보니다의 바빌론 통치와 바빌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멸망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나보니 다스 와 벨사살 시대에 바벨론을 패배시킨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계승은 나보니 다스 와 벨사살이 공동 통치하고 BC 539년에는 키루스가 통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반드시 다니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고 기록되어 있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몇 가지 합리적인 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는 고레스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일종의 왕좌 이름이나 칭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글랏 빌레셀 과 함께 그가 바빌론에서 풀로 알려졌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아시리아의 왕이었습니다. 대상 5:26에서 디 글랏 빌레셀은 풀이라고 불립니다. 바빌로니아 이름이 사용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왕좌 이름이거나 보존되지 않은 키루스의 칭호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통치하에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단지 와우(and)로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사람 키루스의 통치 중에도”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음” 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이는 다리우스와 고레스가 두 이름을 가진 동일한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어느 정도 상세하게 제안되고 해결된 또 다른 가능성은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키루스가 바빌론에 임명한 총독이었던 구 바루(Gubaru) 라는 개인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을 정복하면서 그는 구바루를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인 구 바루(Gubaru)는 바빌로니아 문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우스는 그 개인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메디아 사람 다리오의 경우에는 이 개인의 신원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 오류, 실수라고 결론을 내릴 이유가 되지 않으며, 이 책이 늦게 쓰여졌다고 결론을 내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고학적 증거가 단편적이라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고학적 확증이 없다면 어떤 확증되지 않은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확증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고고학적 증거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어떤 것이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의심스럽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단순히 좋은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이름을 메대 사람 다리우스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식별 중 하나를 확실하게 만드는 추가 확인이 없습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뭔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확증이 부족해서 이것이 400년 후에 쓰여졌으며 역사적 오류라는 급진적인 결론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후기 언어적 특징으로 추정됨

후기 언어적 특징으로 주장되는 것은 다니엘서의 초기 연대에 대한 세 번째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그리스어 외래어의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외래어는 3장 5절에 나오는 악기였습니다.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각종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무너지느니라.” 악기에 대한 용어 중 상당수는 그리스어 외래어입니다. 즉, 그리스어를 음역한 것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물론 결론은 그리스어 외래어가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 시대에 속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어 외래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학적 근거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후기 유형의 아람어라고 불리는 아람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람어가 후기형이라고 주장됩니다.

이제 저는 그 주장들 중 어느 것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대 훨씬 이전에 그리스인과 근동 지역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약기의 이름 분야에서는 무언가가 서쪽에서 바빌론으로 수입되어 이름이 함께 왔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러한 종류의 접촉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람어 질문에 관한 한, 당신은 기술적인 토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인용문 중 35페이지에 있는 Baldwin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KA Kitchen의 “The Aramaic of Daniel” 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는 다음을 살펴봅니다: A: 어휘; B.: 형태론 및 음성학, 그리고 C.: 일반. 키친이 치밀하게 추론하고 잘 문서화된 작업의 결과로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아람어는 제국 아람어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자체로는 기원전 600-330년경의 어떤 확신과도 실제적으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발전한 동부 아람어와 서부 아람어를 구별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원산지에 대한 유일한 표시는 아카드어의 영향을 배반하고 다니엘의 아람어가 후기 팔레스타인에서 파생된

제국 아람어와는 대조적으로 기원전 7~4세기 초기 제국 아람어의 전통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 순서에서 나옵니다. . 그리스어 단어의 출현에 대해 많은 것이 만들어졌으며, 비전문가에게는 그리스어 단어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단어가 세 개만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두 약기의 이름이다. 그리스 상품은 8세기부터 고대 근동 전역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바빌론에서 고용된 것으로 보이며 기원전 6세기 바빌론에 그리스 이름을 지닌 그리스 기원의 도구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아람어에는 그리스어로 외래된 단어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M. Hengel에 따르면,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부터 예루살렘은 그리스어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교의 귀족계층과 군사계에 그리스어가 알려져 있다는 것이 제논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원전 175년 안티오코스 4세의 즉위 당시 이미 널리 퍼져 있었으며, 마카베오 왕조의 자유투쟁에 승리하더라도 거의 억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세기부터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그리스 비문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의 아람어에는 헬라어 단어가 세 개 이상 나오지 않으며 그것들은 기술적인 용어라는 사실은 이 책이 기록된 연대가 2세기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증거에 따르면 다니엘의 아람어는 3세기나 2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6~4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후자는 배제되지 않지만 훨씬 덜 현실적이며 사실에 의해 그다지 선호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논쟁에서 HH Rowley의 늦은 날짜는 Kitchen의 조사 결과에 의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모든 주장은 초기 아람어 연구 현황에 대한 주요 조사에서 이스라엘의 주요 학자에 의해 반박되었으며 다른 언어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의 연대를 언어학적 근거로 결정할 수 없으며 점점 더 많은 증거가 2세기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체 언어학적 질문은 다소 기술적인 질문이지만, 이를 자세히 분석하고 많은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책의 늦은 날짜를 뒷받침하지 않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

귀하의 참고문헌에 이 문제에 관한 여러 기사를 나열했습니다. 6 페이지에 있는 공지 사항 중 세 번째 항목은 DJ Wiseman이 편집한 다니엘서에 있는 Kitchen의 기사인 "The Aramaic of Daniel"입니다. 그런 다음 Wiseman의 기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몇 가지 역사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마우치의 세 가지 기사는 모두 유용합니다. “다니엘의 고고학적 배경” , “알렉산더 이전의 에게해와 근동 사이의 맥락에

있는 다니엘” , “다니엘에 나오는 그리스어 단어” 입니다. 특히, 키친 (Kitchen), 와이즈먼 (Wiseman), 야마우치 (Yamauchi)의 기사는 다니엘 연대에 대한 전체 질문에 관심이 있고 비판적인 주장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공하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4) 결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니엘과 늦게 데이트할 딱히 설득력 있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책의 연대를 늦게 결정하는 데 대한 역사적, 언어적 주장 각각에 대한 적절한 답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근본적인 질문은 진정한 예측 예언의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미래에 대해, 특히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대해 그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확신한다면, 그 때 이후나 그 때의 날짜를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측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자료는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니엘 1-6 역사 부분

2. “서론” 아래의 “목적과 관련된 책의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6장은 역사적 부분이고, 7-12장은 예언적 부분으로, 예언적 의미에서 예언적 부분입니다. 1~6장에는 서술형이 있고, 1~6장에는 자료가 꽤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양한 왕들 등 다양한 개인들에 대한 여섯 개의 개별 이야기, 즉 여섯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 부분에는 이야기 대신에 환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네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7장에 환상이 있고, 8장에 환상이 있고, 9장에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10장, 11장, 12장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장은 실제로 10장, 11장, 12장으로 그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12장에는 네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인 7-12는 거의 전적으로 예측입니다. 역사는 거의 부수적입니다. 자료는 예측 담론이고 예측 자료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6개 장 중 5개가 서술형 자료입니다. 그러나 한 장은 서술적 맥락에 있지만 대체로 예측적이며 그것이 2장입니다. 2장은 그 환상에 대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해석에 주어진 형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섹션의 2장은 서사적 맥락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7-12장의 내용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즉, 이 책에는 주로 예측에 관한 장이 7개 있고 12개 중 5개가 서술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인 역사적 부분을 볼 때, 그 장들을 읽고 그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열왕기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의미의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결된 역사를 보여줍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당신은 바빌론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페르시아의 역사가 없습니다. 당신은 바빌론과 느부갓네살에 대해 뭔가를 배웁니다. 당신은 페르시아 시대에 대해 뭔가를 배웠지만, 그것과 관련된 어떤 프레젠테이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생애에 대한 전기적 개요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에 대한 연결된 설명이 없으므로 다니엘의 삶에 대한 역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삶의 특정 사건에 대해 뭔가를 배울 수 있지만 그의 삶이나 활동에 대해 연결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여섯 장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심지어는 통일된 원리를 지닌 다니엘과 관련된 역사의 특정 기간에 대해 연결된 담론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서술이 아닙니다.

다니엘 1-6장 내용 요약

다니엘 1

그렇다면 조직 원칙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 자료가 우리가 찾는 방식으로 이 책의 첫 부분에 배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빠르게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다니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각 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을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실함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 충실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충실하며 그로 인해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 2

2장에서 다니엘은 왕의 환상을 해석하는데, 장 전체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력하시다는 것이 이 장의
 위대한 사상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그러한 모든 통치자들
 위에 최고이십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만왕의 주시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니 네가 능히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은밀한 것을 드러내라.’” 이것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 만왕의 주재시라.” 그러므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그러한 모든
 통치자들 위에 최고이십니다.

다니엘 3

3장은 느부갓네살이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리는 장입니다.
 이 이미지에 절하세요. 세 사람이 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느부갓네살왕 자신이 인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당신에게 대답하기가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의 끝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 그렇지 아니하시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주목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생각은 결과에 관계없이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느부갓네살보다 크시고 온 땅의 어떤 세력보다 더 강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면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은 느부갓네살보다 크시고 땅의 세력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을 어기고 그들의 몸을 바쳐 자기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니엘 4장

4장: 일부 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장을 빠르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위대함을 선언했고, 하나님은 그를 미치게 하시고 그가 들짐승들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자 그는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를 쫓아내리니 네가 들짐승과 함께 거하리라. 그들이 너로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너를 하늘 이슬로 적시리라. 네가 가장 높으신 분을 알 때까지 일곱 때를 지나야 할 것이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느니라”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 후에 그는 바벨론 왕국의 궁전 안의 홀들을 거닐었습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하여 내 능력의 힘으로 건축하여 나라의 집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네게 말하였느니라 왕국이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사람에게서 쫓아내고, 네가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로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다. 네가 가장 높으신 분을 알 때까지 일곱 때를 지나야 할 것이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느니라’ 같은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34절, “말일에 나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나의 이해력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축복했습니다 . 그리고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을 찬양하고 존경했습니다 .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느니라.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느니라.” 기타 등등. 37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존경하나이다.” 따라서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월성” , 4장. 특히 느부갓네살에 대한 것입니다.

7년이든 아니든 “일곱 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7년보다 짧은 7년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7주가 될 수도 있고, 7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것이 7년이라고 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느부갓네살은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7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4절에 “말일에 나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보았노라” 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과 유사한 질병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이칸스로피(lycanthropy)라고 불린다.

비슷한 일이 영국의 조지 3세 왕과 현대 바이에른의 오토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종류의 정신 질환을 보이는 것은 이상한 상태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독특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다른 예에서 알려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 처럼 자라고 그의 손톱이 새 발톱처럼 자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7 일이나 7주보다 길게 들리지만, “일곱 때”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니엘 6장

6장은 “세상 통치자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6장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는 장입니다. 그는 일부 관리들의 설득을 받아 자신 외에는 누구도 숭배하지 않는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매일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자굴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 6장의 끝에서 다리오 왕이 25절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나라에 영원히 견고하시고 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그의 통치는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원하시며

구원하시며 하늘 과 땅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다니엘을 사자의 세력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하여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까지,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가 통치할 때까지 형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같은 주제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우월성”, 다리우스와 사자에 대한 하나님의 우월성.

다니엘 1-6장 요약

따라서 처음 여섯 장을 통해 빠르게 살펴보면 모든 장의 중심은 하나님이 자연, 역사, 인간 통치자보다 최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특정 왕국이나 왕, 개인에 관한 일종의 연결된 담론이라는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역사라기보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끔찍한 어려움과 박해에 직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며, “그가 원하시면” 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불타는 용광로의 경우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니엘 1-6장이 다니엘의 삶과 그의 친구들의 삶,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왕들의 삶에서 나온 일련의 삽화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는 설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중. 따라서 주요 주제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점은 그분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위에 최고이시며, 그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확실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특정 시기에 특별히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은 특히 하나님께 대한 충성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여섯 장의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제국과 유대인 박해의 역사적 맥락

문맥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큰 박해는 없었지만 약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산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차례 박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광범위한 박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로 가보니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박해는 없지만 페르시아 시대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것은 그 시대의 특징보다 더 고립된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지역에서 알렉산더 왕국의 영토를 장악한 알렉산더의 장군이었으며, 팔레스타인도 100년 넘게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프톨레마이오스 통치 하에서는 큰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기 위해 저 아래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다마스쿠스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앞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셀레우코스 왕조는 팔레스타인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원전 175년과 164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셀레우코스 통치 초기에 박해에 관한 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 그는 유대교를 종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헬레니즘 문화에 통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의 발기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벌거벗은 운동을 하고, 돼지고기를 먹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 중 일부가 그를 따랐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습니다. 마카베오 1서와 2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치하에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해진 박해에 대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후의 유대 역사 전체를 통해 안티오코스는 유대 민족에 대한 큰 박해자이자 유대인의 끔찍한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 마카베오는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맛다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 요한, 시몬, 유다, 엘리에셀, 요나단이 안티오코스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박해자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기원전 164년에 안티오코스에게 의해 더럽혀진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박해 문제에 관한 역사의 길고 간단한 개요일 뿐입니다. 내 생각에 그 역사와 다니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을 쓴 이유 중 하나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를 위해 유대인들을 준비시키고 앞으로 다가올 박해와 어려움의 기간 동안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사실, 당신이 발견한 것은 이 통치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Antiochus Epiphanes) 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박해 중 하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이 책이 기록된 후 처음으로 큰 박해 기간이다.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까지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시대에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을 쓰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찬들러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재연함